

119번 다언어대응에 대해서

【대응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시스템의 개요】

외국인 분으로부터의 119번 통보시, 전화 통역 센터를 통하고, 24시간 365일 주요한 언어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방차·구급차를 부를 때는 국번없이 「119번」

외국인의 통보자

소방서



·근처에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쪽이 있을 경우는, 그쪽에게 119번 통보를 의뢰해 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안정되고, 주소나 현장 가까이 목표물을 전해 주세요.

·전화 통역 센터와 접속할 때, 일시적으로 무음이 됩니다만 그대로 잠시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구급차를 부르는 방법



제일먼저 「구급차가 필요」 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구급차를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건물이나 표시가 될수있는 목표물 등을 알려 주십시오.



〇〇교차로의 근처입니다. (〇〇소방서의 앞에 길을...)



누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알려 주십시오.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며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장소와 상황을 알게된 시점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모를 때에는 대략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



45세 정도입니다. (40대입니다)

구급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질문을 하오니 침착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